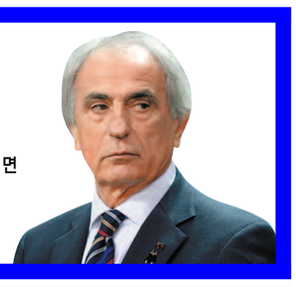
스포츠동아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sportsdonga.com 10판

"스포츠 감독들은 왜 잘리나"
전문기자들의 생생 뒷담화 11면



할릴호지치 감독 ▶

조용필 50&

"라디오시티홀 공연 〈2008년 아시아가수 최초 뉴욕공연〉 내 인생 최고의 순간"

데뷔 50주년…'영원한 오빠' 조용필을 만나다

'가왕'이란 수식어는 조용필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처럼 느껴진다. 반세기 동안 노래만 불러 '국민가수'라는 평가를 받는 조용필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데뷔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회를 밝혔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꿈' '추억 속의 재회' 가장 애착가는 곡
방탄소년단·엑소·빅뱅 노래 자주 들어
50주년 앨범-20집, 올해 발매 힘들듯
건강 비결은 소식…오후 6시 이후 금식

반세기동안 노래만 불렀다. 그저 "노래가 좋아서", 할줄 아는 게 "노래 밖에 없어서 불렀을 뿐"이다. 1968년 무대에 오르기 시작해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왕' 조용필(68)의 말이다. '최초' '최고' '최다'로 수식되는 각종 기록을 대거 보유한 '국민가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그는 '가왕'이라는 말조차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했다.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용필은 "대한민국 가수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며 "5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보답할 길이 없을 것 같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얀 정장에 진갈색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한 그는 "이런 대접이나 관심을 받으려 음악을 한 게 아닌데, 어떤 평가를 해줄 때마다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음악평론가 임진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조용필 히트곡이기도 한 '어제 오늘 그리고'라는 주제로 조용필의 음악인생 50년을 조명했다. 그는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최근 평양 예술단공연, 그리고 새 앨범 이야기 등을 풀어냈다.

-오랫동안 정상에 있었다.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무엇을 위해 음악을 한 게 아니다. 음악이 좋고, 듣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음악을 들으면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자극도 받고 고민도 하게 된다."

조용필은 '기록의 사나이'다. 1980년 발표한 정규 1집은 단일앨범 최초로 100만장 이상 팔렸고, '고추잠자리'의 엄청난 히트로 인해 당시 음악프로그램이었던 '가요톱텐'은 연속 1위 횟수를 제한시켰다. 2008년 8월 한국가수로 처음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홀에서 공연했다. 5000석 규모의 라디오시티홀은 1932년 12월을 문을 연 미국 뉴욕 록펠러 센터의 음악 공연장으로, 매년 6월 토니상 시상식이 열리는 유서 깊은 장소다.

-50년 음악인생에서 기억에 남거나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라디오시티홀 공연이다. 그 곳은 '자격'을 보는 공연장이다. 그날 공연장을 사용하겠다는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13명이 있었다. 나는 2003년과 2005년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진행한 공연을 자료로 냈다. 그것으로 바로 통과됐다."

-가장 애착이 남는 앨범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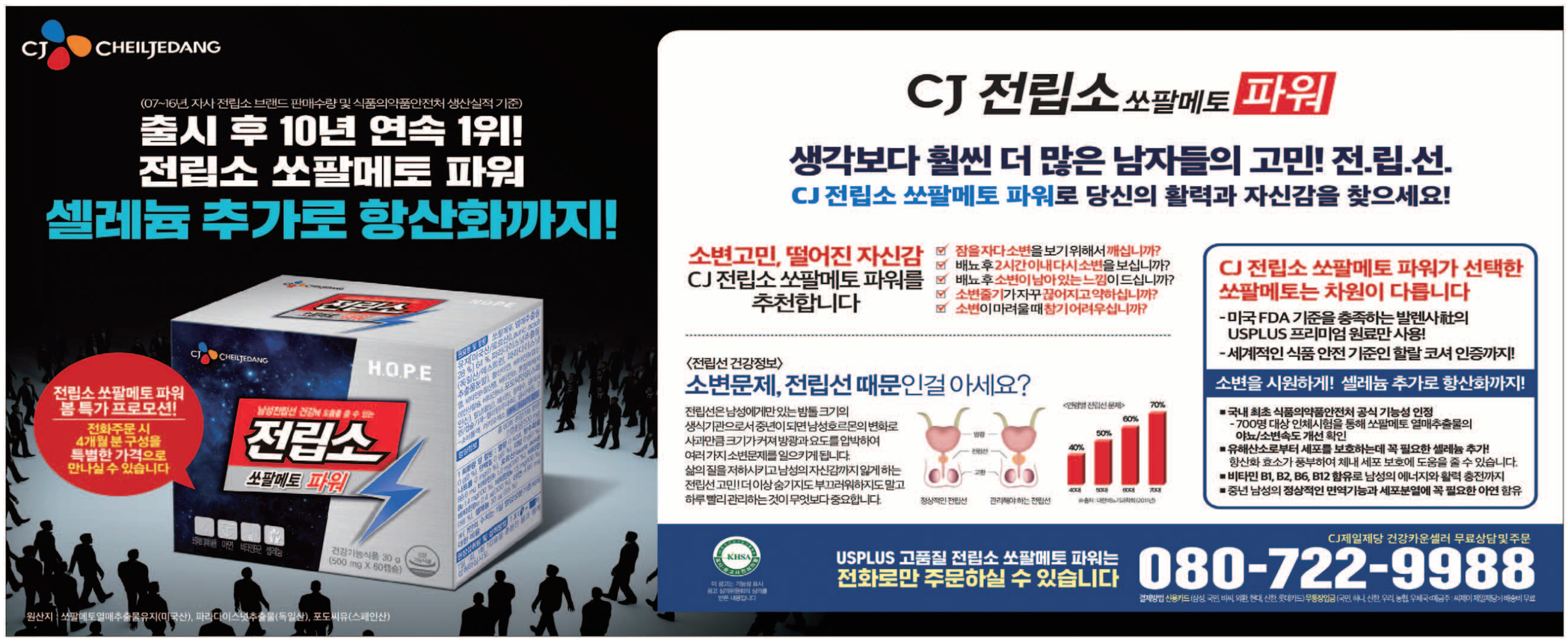
"정말 말하기 어렵다. 곡으로 따지자면 있을 수 있다. 13집 수록곡 '꿈'이나 12집의 '추억 속의 재회'가 그렇다. '꿈'은 비행기 안에서 만든 노래다. 지금도 노래 연습할 때 가장 먼저 한다. 목을 푸는데 최고다."

-19집 '바운스'로 세대통합까지 이뤄냈다. 당시 초등학생들도 열광했다.

"열광은 아니다. '몰랐던 사람을 알게 됐다'는 정도일 거다. '계속 음악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 다양한 음악을 듣고, 찾아서 나온 게 '바운스'와 '헬로'였다.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꼰대'라는 말을 알고 있나.

"물론이다. 제가 꼰대다. '꼰대'라는 건 누구나 오는 거다. 쉽게 받아들이면 된다. 거북스럽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나는 꼰대'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주위 사람들에게 일부러라도 '내일모레면 나이 70'이라고 말한다. 나이가 많아도 음악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되지 않나. 80세가 될 때까지 음악을 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